

1930년대 오락물로서 역사의 소비

- 야담방송과 『월간야담』을 중심으로

고은지*

1. 1930년대 역사의 대중화: 역사소설과 야담의 인기
2. ‘야담장사’의 기반: ‘이야기꾼’의 전통과 근대적 문화 공간
3. 야담의 일상적인 소비의 시작과 수요의 확대: 라디오 야담방송
4. 야담의 제작 방식과 상품성: 역사를 소재로 한 대중적 통속물
5. 야담의 다양한 층위, 그리고 지속적인 생명력

국문요약

1920년대 후반 교양에서 오락에 이르기까지의 층위에 걸쳐 다양한 양식들의 역사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마이테자』의 성공으로 확인된 역사의 상품화는 역사소설과 야담의 활발한 생산을 견인했고, 이 중에 야담은 연일 신문, 라디오 방송, 잡지 등을 통해 끊임없이 생산되면서 대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러한 ‘야담장사’는 이야기꾼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극장, 방송, 잡지 등 새로운 소통 공간의 출현에 힘입어 1930년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번성해간다. 라디오의 등장으로 야담이 일상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월간야담』과 『야담』의 연이은 창간으로 야담의 소비에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사라지면서, 야담은 더욱더 광범위한 소비 시장을 확보, 인기 있는 일상적 오락물로 자리하게 되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비롯한 수많은 전대의 문헌 속에 수록되어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말로, 글로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풀어내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야담의 제작방식은 짧은 시간 속에, 신속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소비자들은 야담에서 역사가 현대물의 통속적 서사 구조로 변형, 혹은 재탄생하는 데서 오는 재미를 발견했고, 이러한 재미에서 1930년대 야담이란 이름으로 역사가 오락물로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나왔다 하겠다. 특히 야담은 향후 ‘전설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같은 인기 프로의 기원이며, 한국 대중 서사물 속에 역사물이 인기 있는 장르로 자리하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 하겠다.

주제어

야담, 월간야담, 윤백남, 신정언, 마이테자, 라디오, 잡지, 통속, 전설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역사소설, 오락물, 이야기꾼

1. 1930년대 역사의 대중화: 역사소설과 야담의 인기

1930년대에 들어 음반, 영화, 대중인쇄매체 등의 다양한 매스 미디어의 번성으로 ‘조선’에도 대중문화 산업이 본격적으로 자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1930년대 대중문화 시스템 속에서 야담은 가장 잘 팔리는 문화 상품 중 하나였다. 야담만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월간지가 두 권 씩이나 발간되었고, 그것들이 동시에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1930년대 ‘야담장사’가 얼마나 활황이었는지 잘 보여준다. 상품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우선 광범위한 소비층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소비층을 유지·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구매욕을 끊임없이 자극할 수 있는 상품의 원활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1930년대 야담장사의 번성을 위해서는, 야담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층이 확보되고 그 수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야담을 생산할 수 있는 효과적

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야담이라고 하는 전근대적인 양식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20세기에 소환되었으며, 그 과정에 전통적인 야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에 집중해 왔고, 그 결과 흥미로운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하지만 야담이 1930년대 대중문화산업 시스템 속에서 번성을 구가할 수 있었던, 시장 구조와 생산 방식에 대한 조명은 미흡했다. 이 글에서는 야담이 당대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1930년대의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 야담에 대한 수요를 낳았으며, 그 수요의 지속과 확산을 위해서 야담 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매력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1930년대 야담의 번성은 대중들이 역사를 오락물로서 소비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조선의 역사’가 대중들과 조우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후반 문화민족주의의 맥락 하에 발흥한 ‘조선학’의 열풍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30년대에 들어 더욱 증폭된 조선학 열풍은 근대 사학의 정립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수많은 역사물이 신문·잡지 등의 인쇄 매체를 통해 다량으로 생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저술된 역사물에서부터 역사소설들이나 ‘애화(哀話), 기화(奇話), 비화(悲話)’ 등의 표제어가 붙은 통속적인 야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역사물들이 ‘조선의 역사’와 당대 대중들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었던 것이다.¹⁾

문학과 비문학, 교양과 오락의 한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다종다양한

1) 이에 대해서는 김병길, 『한국근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64-69쪽; 이승윤,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형성과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65쪽-135쪽 참조.

역사물들 중에 대중들의 인기가 집중되었던 것은 단연 역사소설과 야담이었다. 각 신문사에는 경쟁적으로 역사소설들을 연재했고, 이중에 이광수와 윤백남의 소설들은 연재 직후 즉즉 단행본으로 간행될 정도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와 동시에 야담으로 명명될 수많은 역사물이 역사소설과 함께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거의 매일 독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이 같은 역사물의 대중적 선풍을 선도한 것은 1926년 5월 10일부터 1927년 1월 9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이광수의 『마의태자』이다. 1928년에 출간된 단행본은 1935년에도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자리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끌었고,²⁾ 장르를 옮겨 가요로, 연극으로, 영화로 제작되는 등 『마의태자』의 대중적 성공은 가히 기념비적이라 할 만하다. 『마의태자』의 성공으로 확인된 역사의 상품성은 이후 수많은 역사소설들의 신문연재를 견인했고, 야담의 대중적 생산으로 이어졌다.³⁾

이 중에서도 야담에 주목하는 이유는 야담만을 단독 상품으로 취급하는 전문 잡지들이 발간되고, 그것들이 동시에 상당한 독자층을 확보할 정도로, 당대 대중서사물들 중에서 야담의 인기가 단연 돋보이기 때문이다. 야담의 대중적 인기와 상관없이 야담은 문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1934년 윤백남이 『월간야담』을 발행했을 때와 달리 그 이듬해 김동인이 『야담』을 발행했을 때는 그에게 많은 비난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김동인이 야담계에 투신했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은 그가 대중소설작가로 분류되던 윤백남과 달리, “순문학의 거장이며 개척자”로 추앙받는 당당한 ‘문인’이라는 데에 있었다. 문인으

2) 「漢圖·以文·博文·永昌等書市에 나타난 書籍市場調査記」, 『삼천리』, 1935.10.

3) 흔히 야담은 역사소설로 이행되었다고 설명되나. 시간적 순서로 본다면 야담의 인기몰이가 시작된 것은 역사소설이 성공을 거둔 이후이다. 야담과 역사소설의 공존에 대해서는 고은지, 「20세기 ‘대중오락’으로 새로 태어난 ‘야담’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03-129쪽.

로서 야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취미 오락잡지”를 발간한 김동인의 행위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⁴⁾ 될 정도로 당대 문단에서 야담은 철저하게 배제된 양식이었던 것이다.

1930년대 각종 인쇄매체를 통해 야담처럼, 소설·희곡·에세이로 범주화되는 공식적인 문학의 장에서 배제되었지만, ‘실화, 애화, 우화, 기담, 만담’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수많은 읽을거리들이 발표되었다. 상당히 이질적인 성향들이 서로 역동적으로 뭉쳐 있는 이러한 대중적인 서사물들에 대해 당대인들은 ‘취미독물’이란 이름을 부여하였다. 이들은 비록 정통 문학권에서 배제된 ‘소설 외(外) 서사’ 양식들이었지만, 하위문화 혹은 대중문화의 권역에 위치하면서 거의 모든 대중문화 매체 속에서 당당히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⁵⁾ 이들 중에서 유독 야담만이 선택되어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잡지가 두 권씩이나 발행되었고, 모두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야담이 다수의 고정적인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야담에 대한 당대의 수요는 어떠한 문화적 기반에서 만들어졌던 것일까?

2. ‘야담장사’의 기반: ‘이야기꾼’의 전통과 근대적 문화 공간

20세기에 야담은 말과 글 두 가지 방식으로 재현되었다. “상업적 야담가”들이 “극장에 방송국에 가두(街頭)에” 진출하여 야담을 구연하는 한편, 『월간야담』과 『야담』 등의 잡지에 수많은 야담들을 발표하면서, 193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바야흐로 야담장사의 번성 시대가 왔던 것이

4) 「金東仁에게 「夜談」을 듣는다」, 『신인문학』, 청조사, 1936.3.

5)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46, 대동문화연구소, 251-285쪽.

다. 물론 이에 대한 당대 지식인들의 시각은 부정적이었다. “구원(久遠)한 이상(理想)을 향해 용진(勇進)하여 할 문예가”들이 “비속한 야담가”들과 섞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6년 당시 “야담장사의 번성”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일부 문사들”은 “생계를 위해 야담계”에 투신해 가는 우려할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리할 필요를 느낀 것인지, 김태준은 당대 야담장사의 번성에 대한 기원을 찾는 글을 한 편 발표한다. 그것이 바로 1936년 4월에 『비평』에 기고한 「야담의 기원에 대하여-간단한 사적 고찰」이란 글이다. 비록 야담장사에 대한 우려로 끝맺고 있지만, 글의 전체는 제목 그대로 야담의 기원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20세기 야담 장사의 활황이 이미 조선 후기부터 번성하기 시작해 1930년대 당대까지도 존재했던 이야기꾼의 전통에 그 기원을 두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이 글은, 탑골공원에서 이야기꾼에 의해 “고담과 기담”이 구연되는 현장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시작한다.

탑골공원의 한 구석에도 여름철만 되고 보면 직업없는 나그네의 자유로운 집합장소로 되어 언제든지 초만원의 성황을 일운다. 그래서 원각사의 오랜 탑 앞에는 유랑객의 기운없는 찬 우습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린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이야기꾼」 한 사람을 둘러 싸고 그 니약기를 듣는다.

「니약이꾼」의 입에서는 에로, 그로, 년센쓰의 古談 奇談이 連發 再發한다.

“넛날 봉이 김선달이란 사람이 평양에 살었는데..” “넛날에 정수동이란 사람이 잇섯는데..”

운운하면 청중은 박자를 쳐 가면서 열광적으로 듣는다. 이런 일은 요사이에 비로서 생긴 일은 아니다.

용어 사용에 예민한 연구자들이었다면 야담과 고담의 함의를 분명하게 나누어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1930년대 야담계의 현실에서 야담과 고담은 혼용되고 있었다. 물론 “고담쟁이가 사령이 죠케는 하나 넘우 상식이 업서 과장을 심히 한다는 점”에서 야담과 구별되기도 했고, “야담은 고담과 같이 떠도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⁶⁾ 하지만 야담의 내용은 “야사를 중심으로 하는 고담”으로 받아들여졌고,⁷⁾ 야담 방송에 있어서도 “고담과 야담을 섞어 쓰다가, 고담이 너무 고색이 찬연해서 야담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했을”⁸⁾ 정도로, 당대 현실에서 야담과 고담의 용어는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따라서 “니약이꾼의 입” 흘러 나오는 “에로, 그로, 년센쓰의 고담과 기담”에 “청중들이 박자를 쳐가면서 열광적으로 듣는” 위 인용문을 1930년대 야담이 구연되는 현장에 대한 묘사로 읽어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그런데 글보다는 그때의 그 장면을 찍은 듯한 사진이 있어, 당시 야담 구연의 현장을 보다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37년 8월 25일 『조선일보』에 실렸던 사진과 이에 대한 기사이다. “탑동공원의 입각당(八角堂) 갑업는 청풍과 지튼 그늘”에서 “고담(古談)으로 ‘스름업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뒷편으로, ‘원각사의 오랜 탑’이 보인다. 사진에는 “희년(稀年)에 친구 찾아 온 이”들과 “산업 예비군인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신가(大臣家) 별당에서 시작하여 십오야 대밭에서 처녀와 중놈이 만나는 이야기”며, “옛날 탑동공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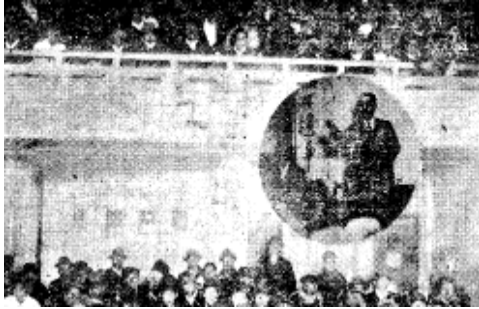
6) 양건식, 「講談과 文藝家」, 『중외일보』, 1927.11.15; 「문화토의실」, 『조선일보』, 1940.3.13.
 7) 신불출, 「웅변과 만담」, 『삼천리』, 1935.6.
 8) 노정팔, 『휴일없는 메아리』, 한국교육출판사, 1983, 63쪽.



거리는 紅塵萬丈 百度를 오르내리는 炎熱을 뚫코 號外소리가 요란하다 (...) 여기는 탑동공원의 八角堂 갑업는 청풍과 지튼 그늘이라 稀年의 스름업는 시간을 이곳에서 옛이야기로 보내고 있스니 (...) 풀을 도우고 惡을 徵戒하는 古談 一齣은 淺薄한 人情에 조들인 今世人에게 한 줄기 清心劑가 되기에 足하다. 역세인 北道사투리가 뜻난 다음 요번에는 경상도 사투리가 등장하였다. 이야기는 大臣家 別堂에서 시작하여 十五夜 대밭에서 처녀와 중놈이 만나는 장면이 이르렀을 때 여פה서 듣고 섰던 젊은 사나히들의 기습이 뚜었다. 이야기가 끝치 나니 비록 가난할망정 청초한 모습을 한 노인 京調 그윽히 까리안즌 목소리로 그 옛날 탑동공원이 큰 절간으로 있을 때의 전설을 이야기하였다. 비하니 이곳에 모인 분네는 稀年에 할 일이 업서 조흔 친구를 차져 온 이도 있고 이야기를 듣고 섰는 젊은이들은 아마 요사이 말로 産業豫備軍인가보다 (...) 시간을 벌서 편집마침말 때가 되었는데 탐방갓던 기자 그 직업을 이저버리고 이 仙境에서 날을 맞칠 번 하얏다.

큰 절간으로 있을 때의 전설”을 듣는 장면을 찍혀 있다. 마감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고담(古談)에 빠져 있어 노라”는 기자의 고백만 없었더라면, 김태준의 글에서 묘사되었던 탑골공원에 모여 “에로틱하고 그로틱하며 년센스한 고담과 기담”을 열광적으로 듣는 군중들의 모습을 찍어 놓은 것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김태준은 이러한 당시 야담 구연의 광경이 “요사이에 비로소 생긴 일은 아니”고, “적어도 이백년 전 이 조시대”에 만들어졌음을 단정적으로 서술했다. 왜냐하면 『추재기이』에서 “직업적인 설서가(設書家)”들에 의해 “에로문학인 어면순(御眠盾)이나 숙향전·소대성전·심청전·설인귀 같은 니약이책”이 “일반 대중에게 방송”되었던 현장을 발견한 김태준은 여기에서 1930년대 ‘야담장사’가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기원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했던 것이다.⁹⁾

9) 이러한 설명은 ‘20세기 야담운동’을 새롭게 창안했던 김진구의 주장과 매우 다르다. 역사를 통한 민중 계몽 운동이라는 방향에서 ‘야담운동’을 기획했던 김진구에 있어 ‘야담’은 지배층의 시선에서 왜곡된 정사(正史)의 이면에 숨겨진 민중의 역사를 의미했다. 그 결과 조선의 야담 전통을 부정했고, 대신 일본의 신강담을 끌어들이어 자신이 창안한 ‘20세기 신술어 야담’을 규정했던 것이다. 결국 김진구의 야담은 오락물서가 아니라, 민중 계몽을 위한 교양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대해서는 고은지, 「20세기 ‘대중오락’으로 새로 태어난 ‘야담’의 실제」, 『정신문



【윤백남야담대회, 인천】 10)



【야 · 만담의 밤, 평양】 11)

이처럼 1935-6년 무렵에도 조선후기 이야기꾼의 전통과 이에 대한 청중들의 열광은 지속되고 있었고, 이는 야담장사가 번성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환경이었다. 이야기에 대한 전통적인 수요가 유지되고 있었기에 야담이 극장과 방송국이라는 근대적 문화 공연으로 그 구연의 현장

화연구』 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06-111쪽 참조.

10) ‘무려 만여명이 입장(…)세시간 동안(…)아죽도 기억이 살아지지 아니한 조선 리조의 력사적 사실을 여실히 나타낼 것(…)그 중에 녀인 군상은 가정부인에게 가장 적절한 이야기(…).’ 『조선일보』, 1933.2.7.

11) ‘야담계의 최고 권위인 신정씨의 량대장과 량미인과 만담계의 경이자인 황재경씨의 조선말 가튼 영어, 울고 살까? 웃고 살까? 등 포복절도할 장면은 천여 청중을 무아경에 끄러 넷타가 동 열시 삼십분 경 산회.’ 『조선일보』, 1936.2.25.

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는 말이다. 위의 자료들은 바로 1933년과 1936년 당대 야담대회란 이름으로 개최되었던 야담 구연 현장의 모습들을 찍어 놓은 보도 사진들이다. 야담대회는 야담 그 자체만으로도 세 시간의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때로는 만담과 함께 공연되면서 청중들을 매료시켜나가면서, 야담 구연 현장을 확대시켜 나갔다. 이러한 야담대회의 성장은 야담에 대한 수요의 확대로 이어졌을 것이다. 극장이나 공원 출입에 제한이 있었던 부녀자들도 방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야담을 듣는 것이 가능해졌고, 시장이나 거리를 비속한 공간으로 여겨 출입을 꺼리는 이들도 ‘야담대회’가 열리는 극장에는 자유롭게 드나들었으리라는 것을 추정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더군다나 매달 발행되는 야담잡지들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어디서나 마음이 내키면 언제든지 야담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야담의 수요층은 전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야담의 일상적인 소비의 시작과 수요의 확대: 라디오 야담방송

1930년대 대중들이 야담이란 이름을 접하기 시작한 것은 구연으로 재현되는 야담을 통해서였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야담대회’를 통해 윤백남이 당대 야담계의 거성으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개최되는 ‘야담대회’보다, 야담이 일상적으로 소비되기 시작한 것은 라디오를 통해 야담방송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1926년 11월 한국 최초의 방송국인 경성방송국의 설립된다. 1932년 일본어 방송과 별도로 조선어 방송이 시작되면서, 라디오는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보급되기 시작한다. 경성방송국에서 활동하였고, 해방 후에는 한국 최초의 PD로

지금의 KBS를 받기하기도 했던 방송인 노정팔은 “라디오가 탄생하면서 부터 야담과 고담 방송이 함께 시작되었고, 고담이라는 용어가 너무 고색창연하여 후에 야담이라는 말로 통일”했던 것으로 회고하고 있다.¹²⁾ 그의 말처럼 야담은 때로는 고담으로 때로는 기담이란 타이틀로 방송되었다.

부정기적인데다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해진 장소에 찾아가야만 했던 ‘야담대회’와 달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꼭 방송되는 야담방송을 통해 대중들은 일상적으로 야담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라디오를 통해 일상적 공간에서 야담이란 이름으로 역사가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야담방송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는 신문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야담방송만 확인된다면, 그리고 라디오의 청취가 가능한 환경이라면 누구라도 장소의 제한 없이 야담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주간에는 요리, 뉴스, 강좌, 연설 등의 시사교양 방송이, 6시대에는 아동·교육방송이, 7시 이후인 야간에는 음악·극 등의 연예오락방송이 배치되었다. 이중 야담은 판소리, 잡가, 가곡·시조창 등과 함께 경성방송국 개국 초기부터 중요 연예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방송 시간은 주로 8시나 9시대에 편성되었는데, 다음은 『조선일보』에서 발췌한 1933년 야담 방송 프로그램 중 일부이다.

연속고담 3회, 박인성, 병어리 御使 9월 14일(목)-9월 15일(토), 밤 9시
 연속야담 3회, 윤백남, 코르시키 奇談 10월 30일(화)-11월 2일(목), 밤 9시
 연속고담 3회, 박인성, 忠狗와 獨猫 11월 6일(월)-11월 8일(수), 밤 9시
 연속고담 3회, 박인성, 主客의 諺 11월 21일(화)-11월 23(목), 밤 9시

연속야담(1회)·연속고담(2회)·연속야담(3회), 윤백남, 清末瑣談 12월 4일(월)-12월 6일(수), 밤 9시
 연속괴담 3회, 박인성, 竹林의 魂 12월 13일(수)-12월 15일(목), 밤 9시
 연속기담 3회, 윤백남, 租界秘話 12월 27일(수)-12월 29일(목), 밤 9시

고담, 야담, 괴담, 기담이 용어가 혼용되고 있었음이 우선 눈에 보인다. 특히 12월 4일 윤백남의 방송에 대해서는 야담과 고담이 서로 교체되는 데서 야담이란 용어가 자리 잡지 못했던 시기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윤백남의 야담 레퍼토리에는 ‘조선’의 이야기가 아닌 외국의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야담의 범주가 조선의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방송 형태를 보면, 3회 정도의 연속 방송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시간 편성은 방송 마감 직전인 밤 9시였다. 진행은 박인성과 윤백남이 주도했는데, 이때 윤백남은 『동아일보』에 『봉화(烽火)』를 연재하고 있었다. 참고로 『조선일보』에서는 홍명희의 『임거정전』이 연재 중이었다. 즉 야담과 역사소설은 공존하면서 역사물에 대한 당대 대중들의 다양한 취향에 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야담과 역사소설의 공존 속에서 야담은 짧지만 강렬한 오락성으로 자신의 상품성을 특화시켜 나갔다.

連續古談 병어리 御使, 박인성: 영조때 平壤城內에서 代金과 客主業을 하는 崔某의 아들이 放蕩해서 父親의 金錢을 欺取한 뒤 梅笑春이라는 妓生을 다리고 雲霧島 로 避身(…)그러게 지내는 동안 崔生은 魔基法에 걸리어 不過 半朔에 大金 百餘兩을 전부 일코 本宅 平壤으로 金錢을 周旋하러 歸鄉(…) [寧邊의] 鄭郡守는 崔生이 엮는 틈을 萬幸으로 生覺하고 下人을 시켜서 崔生의 愛人을 欺罔하고 寧邊으로 데리고 가 버렸습니다.

12) 노정팔, 『휴일없는 메아리』, 한국교육출판사, 1983, 63면.

連續怪談 竹林의 魂 박인성: 이백오십년전 효종시대의 좌상 金錫胄의 少年時代의 이야기다. 그는 早失父母하고 名勝地를 周遊하는 중 全南 羅州地方에 이르렀을 때 그곳 某所 竹林에는 밤마다 女子의 幽靈이 出現하여 人馬가 不通되고 그곳의 損害는 莫大하였다. 김석주는 김흔 밤 죽림 속을 드러가 유령을 붓들고 그 까닭을 물어가지고 怨讐를 감허준 뒤부터는 유령도 사라지고 짜라서 마을은 냇날 그대로 舊되였으며 소년 金錫胄의 功勞를 칭송치 안는 이 업섯다. 幽怪談의 一席.

경성방송국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을 각 언론사로 보낼 때,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의 개략적인 내용을 함께 보내기도 했는데, 위 인용문들은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던 야담방송의 개략적인 내용이다. 1933년 9월 14일 『조선일보』에 소개되었던 ‘영조 때’의 이야기인 「병어리 어사」는 방탕한 부잣집 도련님이 부모의 돈을 훔쳐 기생과 도피행각을 벌이던 중, 땀에 넘어가 도박으로 모든 돈을 잃고, ‘애인’마저 빼앗긴다는 내용이다. 제목인 ‘병어리 어사’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는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이상의 내용만으로 「병어리 어사」의 서사가 매우 익숙한 통속적인 요소들로 짜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물의 허랑방탕한 행각들, 여자를 사이에 둔 남자들 간의 다툼, 사기와 배신으로 점철된 인간관계 등은 청취자들을 라디오 앞에 잡아 두기에 충분히 자극적인 화소들이다. 이어 그해 12월 14일 『조선일보』에 소개되었던 괴담 「죽림의 혼」의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효종 때의 실존 인물 김석주가 주인 공인 이 이야기는, 귀신 출몰로 폐허의 지경에 이른 마을에 용감한 인물이 나타나, 귀신의 원한을 풀어주어 평화를 회복한다는 매우 낮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 기담은 MBC의 장수 프로그램이었던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한번은 방송되었음 직도 한 그런 내용이어서 흥미를 끈다. 이러한 유사성은 다른 야담방송에서도 느낄 수 있다. 다음은 1938년 『조선일보』에 소개되었던 야담방송의 내용 중 일부이다.

活佛, 유추강: 나중에 우상에까지 벼슬이 이르러 77세에 돌아간 온양인 숙헌공 정만석(鄭晩錫)이 순조 때에 어사를 배명하고 양호 지방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 전란도는 크게 가물어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지내기가 말이 안될 형편(…) 한 마을에 들어가자 농민들이 크게 마시며 노래하고 질기는 것을 보고 괴이히 여겨 이런 흉년에 저것이 원일(…) 김진사라고만 하는 선배가 있는데 그가 빈민들에 때로 하사하여 별로 흉년임을 모르고 지낸다고 하엿드랍니다 정어사 내심에 필경코 그 자가 도적의 두령임이 틀림없다하고 내탐을 하라고 일부러 파입폐복을 하고 김진사를 차젓습니다. 그 결과 과연 엇더하였는지 의문의 인물 김진사는 후에 홍경래란에도 큰 공을 세운이지만 영영한 기인으로 아럿을 뿐 그는 본을 모른다고 합니다.

四蛇昇天, 김탁운: 지금으로부터 오백년전 사람으로 벼슬이 좌의정까지 일으켰다가 연산때 무오사화에 연좌되었든 문정공 어세겸(魚世謙)의 젊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로는 유조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다섯 말이 용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한 마리는 중도에서 떨어지고 네 마리만이 하늘로 올라 가드라고 이야기 하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님은 무엇이라고 해몽하였는가 과연 후일에 어떠한 일이 잇섯는가?

뻔뻔한 여자, 신정연: 때는 이조 성종입니다 당시 심심원(沈深淵)이라는 이가 잇섯는데(…)한 소북미인을 맛났습니다 그는 청상으로 천정에 도라가는 도중인데 중로에서 부랑배를 만나 혹 무슨 봉변을 할

까 두려워한다 하므로 선뜻 그러며는 남매행세를 하자하고 중로에 한 여관에서 묵게 되었는데 의외로 그 여인은 여적으로 밤사이에 그 주인 집의 물건을 훔쳐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심은 공범으로 몰려 고초를 당하고 후에 다시 그 여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풍파를 격근 파란만장한 풍류남아의 일대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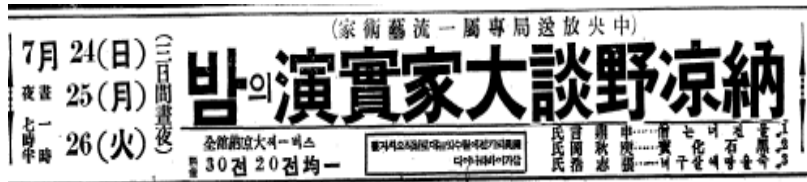
유추강의 「활불」(9.11. 8시)은 『대동기문』에 실려 있는 ‘정만석이 김진사를 만나 적을 쳐부수다’라는 이야기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 「기인 김진사」라는 제목으로 1936년 『월간야담』 20호에 실린 야담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모티프로 삼고 있다. 야담방송과 읽을거리로서의 야담의 생산은 동일한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실제 인기 야담가는 동시에 인기 야담 저술가들로 활약했다. 「활불」은 일종의 기인담(奇人談)으로, 『월간야담』의 내용을 참조하면, 김진사라고 하는 기인이 후에 정만석이 흥경래난을 해결하는 데 큰 결정적인 전략을 알려준 인물로 나온다. 정만석의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김진사라고 하는 허구적 인물이 만들어져 이야기의 흥미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김탁운의 「사사승천」(11.4, 8시 30분) 역시도 『용재총화』에 수록된 어함종의 꿈 이야기를 저본으로 한 이야기다. 신정언의 「뽀뽀한 여자」(10.7, 9시)에 등장하는 심심원이라는 풍류남아는 조선 시대 야담 문헌에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방송의 내용과 유사한 에피소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야담 방송은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 겪는 기이한 사건들을 재미나게 엮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의 실재성(實在性), 사실성(事實性)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 자체의 기이함이 주는 흥미로움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金雁 장지호: 지금으로부터 사백여년전 이조 세종조에 생긴 일입니다 경상남도 진주 땅에 하성금(河成金)이란 이가 있었는데 (….) 한 해는 대단히 가물이 들어 거 원동리가 곤란을 당하고 있을 때 하씨는 동이를 위해서 우물을 파고자 해야 뗏 길을 파 내려갔는데 문득 한 개 늦쟁반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집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향간에서 전해오는 하수분(河水盆)이라는 것인데 이 하수분이 나중에 금기력이기 되어서 그 자취를 감추기까지에 이 이야기를 할라고 합니다(9.14, 8시 30분)

앞의 이야기들이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라면, 위의 이야기는 ‘화수분’에 대한 유래에 얽힌 전설이다. 이처럼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기이하고 흥미로운 에피소드나, 화수분이란 말이 만들어진 유래는 우리가 언제가 한번 쯤 ‘전설따라 삼천리’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들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런 측면에서 30년대 야담방송과 ‘전설따라 삼천리’의 원형으로 볼 수도 있겠다. 후에 TV드라마가 확장되면서 ‘전설따라 삼천리’ 포맷은 ‘전설의 고향’으로 옮겨 갔다고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장편의 사극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전설의 고향’과 장편 사극의 공존이 1930년대 대중적 역사허구물로서 단편의 야담과 장편의 역사소설이 공존하는 관계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

이상의 야담방송들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 중 하나는 대체적으로 특정한 역사적 시대를 거론하면서 방송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역사적 조건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순조때 정만석이 성종 때의 인물이어도, 세종 때의 인물이어도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흥경래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중요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야담방송의 목적은 민중반란이 아니라, 김진사라고 하는

기인의 일생이 주는 흥미로움이다. 이처럼 재미로 가득 찬 야담 방송은 인기를 끌지 않을 수 없다. 야담 방송의 인기는 스타 야담가의 배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중에 신정언의 활약이 눈에 띈다. “천하일품으로 어린이나 늙은이나 그의 방송이 잇슬 때는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재미있게 듣는”¹³⁾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던 야담가 신정언의 인기는 높은 방송 출연료¹⁴⁾ 통해 입증된다. 신정언은 유추강, 장지호와 함께 방송국에 전속된 야담가로 활약하였고, 신예 스타로 김탁운이 부상하였다



【중앙방송전속 일류 예술가]남량야담대가실연의 밤: 신정언-물 건너는 승, 유추강-黑石化寶, 장지호-죽을 따에 살 구녁】



유추강 신정언 장지호 김탁운

【춘소를 황홀케 할 야담대회:神瓶(유추강), 一經千讀(장지호), 無子得孫(최여성), 토막야담數題(신정언), 의문의 □(김탁운)】

야담은 ‘야담대회’란 이름으로 극장이나 회관 등의 공개된 무대에서

13) 湖岩, 「흥미진진한 신정언야담집」, 『조선일보』, 1938.11.4.
14) 「情報室」, 『삼천리』, 1941.9: 放送一回의 料金(…) 야담에 7圓(단, 申鼎言씨에겐 10圓). *이외 강연, 공화, 강좌, 소설낭독, 음악독창 등 개인 출연료는 7원이었다.

소통되었다. ‘윤백남 야담대회’나 ‘신정언 야담대회’ 등의 타이틀이 말해 주듯이 한 사람의 야담가의 참여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4-5년” 그러니까 1934-1935년 간 부쩍 “절대적 인기”가 높아진 야담의 세력에¹⁵⁾ 힘입어 스타 야담가들이 많아지자 3일간에 걸쳐 주야로 2회씩 총 6회의 야담 공연이 개최될 정도로 야담대회의 규모가 커진다. 바로 1938년 “남량” 특집으로 개최되었던 “야담대가”들의 “실연의 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1939년 봄에는 “춘소(春宵)”에 무료한 독자들을 “위안”하기 위해 『조선일보』사는 무려 4사람의 스타 야담가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야담대회를 개최한다. 이처럼 라디오를 통한 야담의 수요 확산과 이에 부응하는 스타 야담가들의 배출에 힘입어 야담대회의 규모 역시 확장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방송을 통해 야담 시장의 확산은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다. 1939년 당시 라디오 보급률은 1.9%의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¹⁶⁾ 하지만 잡지는 라디오에 비해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과 계층을 포섭할 수 있다. 방송을 듣지 못하는 계층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다달이 발간되는 『월간야담』, 『야담』 등의 잡지를 통해 수편의 야담을 정기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야담시장은 라디오에서 잡지로 더욱 확장되어 갔다.¹⁷⁾

15) ‘조선에서 야담의 인기를 끄을기 시작한 것은 어느 듯 십년의 역사를 가졌거나와 (….)최근 사오년 이래 야담의 세력은 놀랄만큼 보급(…)잡지를 통하여 또는 라디오를 통하여 절대의 인기.’ 『조선일보』, 1939.4.1
16) 『조선』, 1949.4, 유선영, 「한국 대중문화의 근대적 구성과정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1992, 263쪽에서 재인용.
17) 현재 『월간야담』은 그 자료가 영인되어 출간된 상태이나, 『야담』은 대학도서관의 귀중서고에 보관 중인 관계로 자료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료의 접근이 용이한 『월간야담』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의 대상을 『야담』으로 확장시킨다면, 1930-40년대 야담의 존재에 대한 보다 풍부한 시각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후속 작업으로 미룬다.

4. 야담의 제작 방식과 상품성: 역사를 소재로 한 대중적 통속물

야담이 문단에서 철저히 외면 받았던 데에는 그것이 창작물로서 독창성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1940년 3월 13일자 『조선일보』의 ‘문화토의실’이라는 난에는 20세기 야담의 정의와 범주, 야담의 현대화 경로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다. 우선 “야사(野史) 중(中)에서 취미(趣味) 있고 유익(有益)한 어떤 편(篇)을 골라서 말로 하기도 하고 또는 글로 쓰기도 한 것”이라는 서두는 곧 20세기 야담의 정의이다. 그렇다면 야담의 20세기화는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이 글은 ‘야담의 현대화’는 “소화 7(1932)년 경에 윤백남과 신정언이 방송국 마이크를 통하여 야사문헌(野史文獻)을 방송”하면서부터였다는 답변을 주고 있다. 즉 방송을 통해서 확대된 야담의 수요가 야담 잡지들의 발간으로 이어졌다는 말이다. 이어 “삼국유사에서 시작하여, 파한집, 역옹패설”을 비롯하여 “청구야담, 동아회집, 대동야승, 연려실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수 백 여 종의 한문서적들이 “야담문헌”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야담이란 타이틀로 발표된 글들을 보면 정사(正史), 즉 『삼국사기』나 『고려사』 등에서 발췌한 것들도 있어, 20세기 야담의 소재원이 되는 문헌들은 전대 한문으로 기록된 모든 문헌들로 확장된다. 때문에 ‘한문에 대한 해독력, 한문에 대한 교양을 야담가의 제일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결국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독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문으로 쓰여 있어 대중적 접근이 어려웠던 기존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말로, 한글로 쉽게 풀어내는 것이 바로 20세기 야담의 실체인 것이다. 이러한 야담의 특성은 야담을 문학의 영역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야담에 대한 소비자들의 왕성한 수요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생산방식을 낳기도 했다. 즉 무궁무진한 이야기 소스가 저장되어 있는 전대의 문헌들 중에 재미있어 보이는 것을 야담가가 선택해 그것을 말로 혹은 한글로 옮겨내기만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야담들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야담의 제작 방식은 야담에 대한 대중들의 폭발적인 수요에 즉각적으로 부응하기에 용이한 시스템이다. 야담방송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며, 동시에 각종 신문 매체에 야담들이 연재되고, 수편의 야담들로 매월 한권의 잡지를 꾸리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미 잘 짜인 기존의 이야기를 활용하는 야담의 고유한 제작 방식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20세기 야담이 전대 한문 원전들의 충실한 번역물이지만은 않았다. 물론 한문의 기록 그대로, 운문 정도의 수준에서 한글로 옮겨 놓은 것들도 있다. 하지만 원문의 맥락을 각색하거나, 아예 새롭게 창작한 것들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 원전 그 자체가 흥미롭기는 해도, 1930년대의 당대적 맥락과 함께 호흡할 수 없다면, 문화상품으로서의 흡인력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에 인용한 「압록강의 꽃」(『월간야담』 21호, 1936.8)은 역사적 사실이 1930년대 문화상품으로서의 매력을 갖추기 위해 당대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화와 해모수의 이야기가 근간이 된 작품이다. 등장인물, 구성, 갈등 구조 등은 원전에 충실하다. 그런데 달라진 점은 유화와 해모수의 ‘연애행각’이 보다 절절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화의 동생 선화의 불타는 질투가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장애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대 통속적인 대중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어쩌면 그 남자는 그러케도 잘 생겼을까. 현출한 키, 둥근 윤곽,

흰 살빛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남자가 그가 아니고 누구이나(…) 그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에게로 오도록 하라는 심산이었다.

달이 이슬하고, 거운 첫 닭이 울 때가 되어 유화는 김뿐 맘으로 돌아왔다. 선화는 자는 척 하고, 고요히 누어 있었다. 유화는 조심스럽게 선화를 깨지 안토록 애쓰면서 옷을 벗고 누었다. 유화의 눈에는 해모소의 환영과 아울러 천사만려가 폭풍우 모양으로 그의 가슴 속에서 물결치고 있었다.

-그이는 과연 천제의 아들일까. 그랬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된 여자이나. 그랬다면 나는 그분의 자부가 아닌가. 이 우에서 더 김뿐 일이 어딤 있을까.(…) 가만이 쥐든 그의 따뜻한 손! 유화는 거의 법열을 느낄 정도로 해모소의 환영을 거리며, 잠이 들었다. 선화는 그제야 가만이 눈을 떠서 형 유화의 모양을 보며 이상한 우습을 우셨다.

유화, 선화, 해모수라는 이름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다면,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현대적인 통속 소설의 한 장면이 된다. 한 남자와 자매의 삼각관계, 게다가 남자의 애인인 언니는 동생의 숙내를 전혀 모르는 상태이다. 그저 “천제의 자부”가 된다는 신분상승의 희망에 부풀어 있고, 남자의 손길을 회상하며 “법열(法悅)”을 느낄 정도로 뜨거운 사랑에 빠진 여자일 뿐이다. 하지만 “그러케도 잘 생긴”, 큰 키에 흰 피부가 눈부신 그 남자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동생은 이러한 언니에게 사무치는 질투감을 느끼고 있다. 하룻밤을 보내고 들어 온 언니를 보며 “이상한 웃음”을 짓는 그녀는, 원하는 바를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는 전형적인 악녀 캐릭터이다. 그 이상한 웃음의 정체는 곧 밝혀진다. 선화는 바로 아버지 하백에게 언니의 “야합” 사실을 과장하여 일러바치고, 이를 알게 된 하백은 불같이 화를

낸다. 그 다음의 일은 원래 문헌의 기록 그대로이다. “유화가 아들을 나으니, 그가 곧 동명성왕, 고주몽이다”는 설명으로 마무리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함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는 사족일 뿐이다. 서사의 핵심은 ‘꽃미남’을 둘러싼 두 자매의 삼각관계라는 각색된 맥락에 있고, 야담을 읽는 재미는 여기서 증폭된다. 1930년대 야담 속에서 고구려 건국 영웅을 낳은 유화와 해모수의 역사는 ‘통속적인 연애물’로 각색되어, 오락물로서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1920년대를 지나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통속문학이 당대 문학 비평계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실이 주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채, 달콤하고 짜릿한 위안을 목적으로 하는 통속문학이, 오히려 ‘불편한 진실’에 천착하는 것을 예술적 사명으로 여기는 진지한 문인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통속문학의 시장은 그만큼 확산일로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통속소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애소설이었다. 장애가 있는 연애담을 기본 구조로 한 이들 연애소설은 성적인 결합 그 자체보다는, 그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정서적 자력(磁力)을 부각시킴으로써, 남녀 간의 이끌림과 그로부터 연유되는 관계의 발전 과정에 이야기의 초점을 둔다. 그리고 여기에 이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악의 무리를 배치함으로써, 이야기의 흥미성을 배가시키는 전략을 활용한다.¹⁸⁾ 『압록강의 꽃』의 서사적 중심은 해모수와 유화의 감정적 이끌림과 언니의 연애를 질투하는 악녀로 등장한 선화의 역할에 있다는 점에서, 1930년대식 유화와 해모수의 이야기는 더 이상 고구려의 건국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통속적 전략을 끌어 들여 탄생한 통속적 연애 물이라 하겠다.

18) 한용환, 『소설학사전』, 고려원, 1992, 윤정현, 「한국 근대 통속소설사 연구」, 165-166면에서 재인용.

해모수와 유희뿐 아니라, 1930년대 ‘야담 썬’으로 소환된 삼국시대의 역사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녀의 이야기이다. 유리왕과 화희·치희의 삼각관계, 호랑이와 사랑에 빠져 버린 김현, 천관녀와 스캔들을 뿌린 김유신, 남편을 위해 왕의 유혹을 뿌리친 도미, 죽은 왕비를 위해 수절한 흥덕왕, 가실을 향한 설씨녀의 믿음 등 야담으로 번역된 『삼국유사』의 이야기들 중에 유독 남녀의 이야기가 자주 눈에 띈다는 점은 바로 당대의 야담이 대중적 통속물로 제작되었던 사정을 반영한다.

원래 그 자체에 연애담으로 재구성될 재료들이 없는 역사에 새로운 인물과 사건을 첨가하여, 역사에는 없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데서 대중적 통속물로서의 야담의 특성은 더욱더 분명해진다. 이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고구려 봉상왕대의 역사적 사실을 근간으로 한 「사랑이나 신의냐?」(『월간야담』, 46호, 1938.11)이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봉상왕은 백성들의 굶주림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15세 이상의 남녀를 징발하여 궁실을 수리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에 재상 창조리는 왕에게 궁실 수리를 중지할 것을 간하나, 이를 듣고 노한 왕은 오히려 창조리를 협박하며 자신의 악행을 반성하지 않았고, 이에 창조리는 백제에 망명하여 소금장사로 숨어 있던 왕의 조카인 을불을 찾아내어 그를 새 왕으로 추대하고 봉상왕을 폐위시켜 버린다. 그 을불이 바로 미천왕이다. 여기까지는 정사(正史)이다. 하지만 야담 「사랑이나 신의냐?」에서 정사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역할을 할 뿐이다.

청년들은 근 일년 동안이나 원몸에서 끌어오르는 젊은 피를 억제하지 못하면서 민정에 어둡고 당신 한 몸의 안일만 일삼는 봉상왕을 폐하고 현상 창조리의 먹은 뜻대로 왕제(王弟) 을불(乙弗)을 추대할

계획을 세워 은연중 분투 노력하던 끝에 이제는 움치고 뿔 수 없는 궁박한 처지에 일고 말았든 것이다. 신의란 두 자의 큰 족자를 등 뒤에 두고 다른 청년의 주목을 받으며 묵묵히 안겼든 이 집의 젊은 주인 리부(利夫)는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로 말하면 국상의 자리에 게신 몸. 그러나 대왕의 미움을 사고 게신 처지(…)간당의 손에 개죽음을 하고야 말 것이니 이 안이 원통하냐는 말일세(…)이제 우리에게 남아 잇는 것은 폭력 하나뿐인 것일세(…)그러치 그 말이 올치 폭력은 폭력으로 갚어야 하지(…)』

역사에서 주인공은 단연 창조리이다. 하지만 여기서 창조리는 사건의 발단만 만들어주고는 서사에서 사라져 버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울분에 차 있는 일군의 젊은이들이 등장하는 데서 시작된다. 창조리의 아들 이부(利夫, 허구적 인물이다)가 이끄는 이 무리는,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모인 혁명아들이다. “몸에서 끌어 오르는 젊은 피를 억제치 못하여” 정권교체를 꿈꾸며 1년 동안 고군분투하였으나, 국상마저 겁박하여 내쫓는 왕의 폭력성과 혁명 좌절에의 불안으로 지금 비장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폭력 하나뿐이다, 폭력은 폭력으로 갚어야 하지”라는 이부의 발언은, 식민지라는 상황 하에서 무장투쟁에 대한 비유가 아닐까하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서사의 중심은 어쩔 수 없이 원수 지간이 되어 버린 청춘 남녀의 비극적 사랑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여지는 사라져 버린다.

여기서 폭력의 대상은 바로 왕의 외척으로 나라의 실세인 ‘민수(敏首)’라는 인물인데, 이 역시 가상의 인물이다. 그런데 바로 이 민수를 암살하겠다는 자처하고 나선 ‘도우(都友)’라는 청년이, 민수의 딸인 ‘설희(雪姬)’

와 약혼한 사이인 것이다. 물론 도우나 설희 역시 가상의 인물이다. 비록 근 1년 동안 “끈호려 해야 끈키 어려운 설희와의 사랑이 중단”된 처지이기 는 하지만, 그녀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민수에게 접근할 수 있으리 라는 판단 때문에 과감히 암살의 임무에 도우가 자원함으로써, 비극적인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폭력 운운’은 역사성을 잃어버린다. 하필 이면 남자주인공이 사랑하는 연인이 원수의 딸이고, 원수의 딸이 하필이면 남자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주인공이라는 설정은, 바로 통속적 연애 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통속적 우연에서 비롯된 불가항력적’ 상황이라 하겠다.¹⁹⁾ 다음의 장면은 우여곡절 끝에 1년 만에 도우와 설희가 상봉하는 부분이다.

설희의 두 눈동자와 붉은 입술에는 타올르는 듯한 정열(情熱)과 그것을 숨기려하는 수집은 태도가 뒤섞여 나타나 있다(…) 두 눈에서 눈물이 금방 쏘다져 나릴 것 같았다.(…) 개인적 평범한 세상-의 주사대가 되는 애욕과 연모와 행복감이 밀물 밀려들 듯 도우의 가슴에 쏘쳐 일어났다.(…) 눈앞에는 눈같이 흰 풍만한 육체 탐스런 어깨와 가슴이 향그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얇은 옷에 싸히여 노혀 잇는 것이었다. 그 탐스럽고 향그런 육체를 당장 자기가 힘껏 끌어 아는맛자 그 육체의 주인공은 조고만치고 거절하거나 반항치 안할 것이 틀림없지 아니하냐? 도우는 입술과 목이 타기 시작하였다.(…) 한 우국사상가로의 존재로부터 갑자기 한낱 아름다운 처녀의 사랑에 빠져 좁게 움추러져 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설희와 두 사람만의 세계에 몸이 잠겨 버리고 말았다.

“애욕과 연모와 행복감”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적 인생과 “무사로서,

19) 윤정현, 「한국 근대 통속소설사 연구」, 171쪽.

우국사상가로서”의 역사적 사명감이 서로 갈등하다가, 결국 청년은 “풍만하고, 탐스럽고, 향그러운” 애인의 “육체”에 굴복하는 그리 낮설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얇은 옷에 싸히여” 있는 “육체”의 주인공은 그가 안는다고 해도 “조고만치고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가 끓는 청년은 신의를 버리고, 그만 아름다운 처녀와 “둘만의 세계에 몸을 잠겨 버리고” 만다. 강력한 정서적 이끌림과 그로부터 연유되는 관계의 발전이라고 하는 통속적 연애소설의 특성에 충실하다. 이들의 연애는 결국 비극으로 끝나 버린다. 왜냐하면 그냥 갑작스럽게 정신을 차린 청년은 다시 “사랑”을 버리고 “신의”를 회복하기 때문이다. 애인의 안내로 드디어 원수와 대면하게 된 청년. 하지만 일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원수의 입을 통해 민수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쓴 간단한 편지가, 오히려 동지들의 고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우연히’ 뜻하지 않게 배신자가 되어 버린 황망한 상황에서 청년은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시퍼런 비수가 들려 있어서. 그 눈 깜짝할 동안 도우는 민수와 자기의 사흘을 가리운 히고 붉은 모란 꽃병을 찍어 넘기었다. 그 다음 순간 민수가 채 벽에 걸린 장검을 끄내 들 새도 없이 도우는 민수의 왼편 가슴을 비수로 힘껏 들이 질렀다. 이 모든 것은 눈깜짝할 동안에 끝이 났다. 도우가 모란꽃송이로 알고 내어질은 비수 끝에 설희의 그 눈같이 흰 목이 반이나 넘어 잘려진 것을 나중에야 도우가 발견하였다. 이 처참한 광경을 굽어보고 섰든 도우는(…) 그 비수로 자기의 목을 힘껏 찢고 붉은 피를 쏘드며 두 시체 위에 그냥 쓸어져 버리고 말었다.

결국 원수를 죽였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지키려고 뛰어든 애인의 목이 자신의 칼에 의해 “반이나 넘어 잘려진

것”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처참한 광경에 청년도 애인을 죽인 그 비수로 자신을 목을 찢러 “붉은 피를 쏟아내며” 두 시체 위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만다. 도우의 이 희생으로 신하들의 인심과 민심이 창조리에게 옮겨가 결국 봉상왕을 쫓아내 정권교체의 개혁은 성공을 거둔다. 「압록강의 꽃」에서와 마찬가지로 에필로그에 사서(史書)의 기록을 그대로 옮기면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함을 보이는 듯하나, 이것 역시 사족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굶주리다 못해 서로 잡을 먹을 지경에 이른 고구려의 백성들도, 오직 자신의 탐욕에만 몰두하는 봉선왕의 불의도, 이에 항거하는 창조리의 의기도 아니다. 서사의 핵심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청춘남녀의 비극적 연애담에 있다.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낸 것은 열광을 끌어 낸 것은 부패한 정권에 항거하는 창조리의 결단이 아니라, ‘도우와 설희’란 이름으로 재현되는 또 다른 버전의 ‘마의태자와 낙랑공주’ 혹은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애타는 사랑이다.

이처럼 야담 「사랑이나 신의나」는 역사적 사건과 상상력의 결합으로 생산된 작품이다. 이부의 존재나, 도우와 설희의 비극적인 사랑, 민수의 암살 사건 등은 허구이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때 그 당시에 있었음직한 인물들이며 사건들이다. 실존 인물들과 역사적 사실은 근간으로 여기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점에서 위 작품의 창작 방식을 현대의 ‘팩션’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의 ‘팩션’이 새로운 역사 해석으로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한다면, 1930년대 야담에서 보이는 ‘팩트’와 ‘픽션’의 결합은 ‘팩트’가 가지고 있는 역사정보보다는 ‘픽션’이 가지고 통속적 서사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역사적 기록은 단지 액자의 역할일 뿐,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통속적인 서사구조로 풀어나가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보우와 설희의 연애이다.

만 일주년 기념호부터는 흥미가 진진한 장편 하나 혹은 실코자 한다. 탐정물일까? 연애물일까? 전기물일까? 사회? 속담에 말하는 바와 가티 박첨지가 나올까? 김동지가 나올까? 이것은 오히려 독자제위의 好奇를 끌을기 위하여 우정 한 개의 비밀로 감추어 두고자 한다.

위 인용문은 1935년 『월간야담』 8월호의 후기 중 일부이다. 이 글에서 1930년대 야담이 ‘탐정물, 연애물, 전기물’이라는 통속적인 서사물로 생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대의 야담을 분류한다면 아마 많은 작품들이 이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이다. 처첩갈등출생의 비밀·신분을 뛰어 넘는 사랑·삼각관계는 물론, 시체유기와 살인을 둘러싼 미스터리 등등의 통속소설에 자주 활용되는 서사 장치들이 총동원된 「정인가화(情人佳話) 벽오동 심은 뜻은」(『월간야담』 35호, 1937.11, 춘금여사)은 이와 같은 『월간야담』의 편집 방향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이와 같은 통속적 서사구조는 시대만 현대로 옮기면 현대물이라 하더라도 낯설지 않다. “과거의 지층에 사는 중년 대중”²⁰⁾은 물론 새로운 감각을 원하는 신세대들까지 공략할 수 있는 야담의 상품성은 바로 역사적 공간에서 역사적 인물들이 펼쳐지는 연애, 복수, 질투, 살인, 음모, 배신 등의 이야기에서 확보된다 하겠다. 즉 기성세대들에게도 익숙한 공간과 인물들이 등장하여 펼쳐지는 탐정물, 연애물, 전기물 등이 신세대들의 감각에도 맞았기에, “모던적 첨단 유행과는 거리가 먼 40 이상의 대중남녀는 물론, 역사에 대해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청춘남녀”들의 열광을²¹⁾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20) 김광섭, 「문예지 야담 기타, 최근 문단시감(文壇時感)」, 『동아일보』, 1936.4.23.
21) 염상섭, 「역사소설시대」, 『매일신보』, 1934.1.20.

5. 야담의 다양한 층위, 그리고 지속적인 생명력

『삼국유사』, 『삼국유사』에서 시작하여 “조선 후기 시정 문화의 출현을 배경으로 이 주변에서 떠돌던 다채로운 삶의 모습들을 한문으로 기록한 단편의 서사물”들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무한대로 품고 있는 저장고이다. 이 안에서 당대 대중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연애, 탐정, 전기’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한글로 옮기거나, 혹은 여기에 약간의 손질을 가하면 어렵지 않게 한 편의 통속적 서사물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1930년대 야담이 생산되던 방식이다. 이 때문에 야담은 독창성이 생명인 순수 문학권에서 철저히 제외되었지만, 야담에 대한 당대 대중들의 환호는 열렬했다. 방송을 통해, 각종 인쇄매체를 통해 야담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야담은 당대 잘 팔리는 문화 상품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1930년 야담을 통해 오락물로서 역사가 소비는 방식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야담의 모습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교훈적인 계몽적인 맥락에서 생산된 야담도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야담들은 흥미보다는 교훈성이 더 강한 측면이 있다. 또한 동일한 역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매체나 수요자의 성향에 따라 여러 버전의 야담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가 ‘어린이 야담’으로 생산될 때에는 공주를 얻을 수 있던 서동의 용기가 강조되었다면, 성인독자를 대상으로 야담에서는 신분을 뛰어 넘는 로맨스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야담의 층위 속에서 이 글에서는 주로 심야 방송과 잡지를 통해 생산되었던 야담에 집중해 보았다. 8시와 9시의 심야에 방송되는 야담의 주 청취자 층은 성인이며, 『월간야담』 및 『야담』 역시 성인 잡지이다. 따라서 이들은 성인 소비층을 공략하기 위해 강한 통속적 이야기 구조를 주요 전략으로 선택했고, 그 전략은 주효하여 야담의

시장의 번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무대에서 공연되는 야담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1936년 조선일보 주최의 ‘신춘야담대회’에서 공연되었던 유추강의 ‘춘몽(春夢)’은, 음모와 배신이 남무하고, 악귀와 선관·선녀의 행렬이 교체되는 장면을 보는 기인이 등장하며, 시체가 다시 살아나고, 지네가 여인으로 변신하여 한 남자를 돕고, 여인을 버린 남자는 다시 빈궁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등의 요소들도 구성되어 있다(『조선일보』, 1936.2.6). “많은 청중을 장시간 동안 희로애락의 세계”에 빠져들게 할 수 있었던 “말 재간”의 구체적인 자질은 바로 ‘진실과 직면하는 두려움’ 대신 ‘관능과 감각에 탐닉’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취향에 딱 맞아떨어지는 이와 같은 통속적인 서사 장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통속성은 세대를 관통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야담이 “야사에서 나온 고담” 내용으로 하고, 만담은 “현대를 배경으로 한 실담”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될 뿐, 야담과 만담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는 신불출의 말은²²⁾ 신문화인 만담과 야담이 동일한 지층에서 소비되었음을 증언한다. 실제 193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야담과 만담이 함께 섞인 ‘야담 만담대회’가 적지 않게 개최되기도 했다. 즉 야담은 신세대적 감각에 호소할 수 있는 통속적 구조를 획득했기에, 계층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면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야담의 특성을 판소리, 잡가 등의 전통가요가 1930년대 중후반 이후 당대 대중가요계에서 쇠퇴하고, 지금은 전통 예술이라는 한정된 영역으로 축소되어 버린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겠다.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중반 무렵까지 유성기 음반 발매 목록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신세대가 선호하는 유행가가 아닌 기성세대가 선호하는 전통가요 장르였다. 하지만 신세대가 경제력을 갖추면서 문화 소비자로 부상하기 시작하면

22) 신불출, 「웅변과 만담」, 『삼천리』, 1935.6.

서 유행가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한편, 새로운 소비자층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전통가요는 급격하게 쇠퇴해 버렸다.²³⁾ 하지만 이에 비해 신세대의 감각에 호소할 수 있는 통속적 서사구조를 갖춘 야담은 새로운 소비자층의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을까? 즉 역사를 당대의 대중들이 선호하는 문화코드 속에서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생산해 냈던 야담의 전통이 한국 대중 서사에 있어 역사물의 인기를 지속시키는 힘 중 하나일 수 있다는 말이다. 앞으로 야담은 한국 대중 서사의 관습적 장치들의 기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는다.

23) 고은지, 「20세기 유성기 음반에 나타난 대중가요의 장르 분화 양상과 문화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21, 한국시가학회, 2006, 103-129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월간야담』, 『별건곤』, 『삼천리』, 『동아일보』, 『조선일보』

2. 논문 및 단행본

고은지, 「20세기 ‘대중 오락’으로 새로 태어난 ‘야담’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03-129쪽.

고은지, 「20세기 유성기 음반에 나타난 대중가요의 장르 분화 양상과 문화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21, 한국시가학회, 2006, 99-136쪽.

공임순, 「재미있고 유익하게, ‘건전한’ 취미독물 야담의 프로파간다」, 『민족문학사연구』 34, 민족문학사학회, 2007, 336-364쪽.

김병길, 「한국근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6, 64-69쪽.

김준형, 「근대 전환기 <옥소선 이야기>의 개작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205-228쪽.

김준형, 「야담운동의 출현과 전개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20, 민족문학사학회, 2002, 146-177쪽.

노정팔, 『휴일없는 메아리』, 한국교육출판사, 1983, 63쪽.

유선영, 「한국 대중문화의 근대적 구성과정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1992, 263쪽.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4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233-259쪽.

이승윤,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형성과 전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5, 65쪽-135쪽.

임형택, 「야담의 근대적 변모」, 『한국한문학』 학회창립 20주년 기념호, 한국한문학회, 1996, 47-85쪽.

정부교, 「근대 야담의 전통 계승 양상과 의미」, 『국어국문학지』 35, 문창어문학회, 1998, 2-20쪽.

정출현, 「야담의 세계」, 민족문학사연구소(엮음), 『민족문학사 강좌(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5, 283-304쪽.

차혜영, 「1930년대 <월간야담>과 <야담>의 자리」, 『1930년대 한국문학의 모더니즘과 전통연구』, 서울: 깊은샘, 2004, 205-232쪽.

Abstract

Yadam, Consumption of History as Entertainment in 1930's-On
focus Yadam-program & 『WalGanYadam』

Ko, Eun-JI

In the latter half of the 1920's, various forms of history products on top of various layers of culture and entertainment were poured out. Commercialization of history confirmed especially by the success of 『The Prince Ma-eui』 led active production of historical novels and historical tales, and, among those, historical tales were welcome by public with ardent cheers, being continuously produced everyday by news papers, radio broadcasting and expert magazines. Such business of 'historical tales', with the basis on the public demand for storytellers, becomes more prosperous as the time passes through the mid and latter half of 1930's, favored by appearance of new connection spaces such as theaters, broadcasting stations and magazines. With the appearance of radio stations, an important chance is provided for historical tales to be consumed on a daily basis and, favored by the successive publications of the first editions of Monthly Historical Tales and Historical Tales, which removed the limitations, in time and in space, of consumption of historical tales, it acquired much wider consumer market

and placed itself as a day to day entertainment. The way historical tales are produced, a method of expressing in words or letters the stories contained in many literatures including 『Samguk Yusa』 and 『Samguk Sagi』, enabled prompt mass production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Consumers found fun in historical tales, coming from transformation or regeneration of history into modern products of vulgar epical structures and such fun was the motive power for the ceasele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istory as entertainment under the name of historical tales in 1930's. Especially, these historical tales were the origin of the popular programs like "Jeonseoldara Samcheonri" and "", and is an interesting subject of study in the sense that it provided a basis for historical dramas to become a popular genre among Korean public epical products.

Key Words

Yadam, Yoon Baek-Nam, Shin Jeong-Un, Yu Choo-Kang, Wolgan Ya-dam, reading subject for hobby, Gyung-Sung Broadcasting System, Jeonseoldara Samcheonri, Jeonseoleui Gohyang

* 위 논문은 2008년 5월 1일에 투고되어, 2008년 5월 28일 심사 완료 후 6월 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